

한인회관 기부금 중 14만 8000달러, 미스터리의 중심에 선 전 건물관리 위원장

애틀랜타 제36대 한인회(회장 이흥기)는 지난 2022년부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통해 한인회와 한인회장에 대해 지속적인 음해를 시도한 일부 반대 세력의 언론 및 SNS를 통한 모함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15만 애틀랜타 한인 동포 사회를 대표해 입장문을 발표한다.**

1 김백규 위원장 외 전 건물관리위원회, 주종광 박사 내외 기부금 14만 8000달러 사용 내역은?

김백규 전 건물관리위원장 외 4명의 위원들(박건권, 윤모세, 이경철, 이국자)은 주 패밀리재단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 지출 공사 내역과 자료들을 즉시 공개하라.

작년 8월 주 패밀리재단의 주종광 현 한인회 명예회장 내외는 한인회관 전면보수를 위해 40만 달러를 기부했고, 건물관리위원회는 이 중 14만 8000달러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흥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내역 관련 모든 자료들(공사내역, 계약서, 워런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지금 시점까지 한인회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 전 건물관리위원회는 공사내역서 제출 요구를 하면 적반하장식으로 '신뢰'를 운운하며 유아무야 넘겨왔고 **지금껏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15만 애틀랜타 한인 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우리 애틀랜타 한인회는 김백규 전 한인회 건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나머지 위원들에게 **지금이라도 정확한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14만 8000달러, 어디에 쓰였나?

주종광 박사가 기부한 40만달러 중 전 건물관리위원회가 집행한 14만 8000달러는 실제 어디에 쓰였나? 애틀랜타 한인회는 주패밀리 재단 주종광 현 한인회 명예회장의 **한인회 보수 유지 기금 40만달러 중에서 14만 8000달러에 대한 공사내역들을 제출해줄 것을 내용 증명으로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특히 이중 음향기기 설치를 위한 6만달러 체크의 수령인이 전 건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었던 박건권 씨가 대표로 있는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로 돼있었던 점이 가장 주목할만 하다. 당시 박건권 씨는 본인의 크레딧카드로 아마존 등 인터넷에서 음향기기들을 직접 구입했기 때문에 **김백규 위원장으로부터 6만달러 체크를 받았다고 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10년전에 구입한 내역도 오늘 내역서를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다. 음향기기 설치 6만달러와 관련, 애틀랜타 한인회에서 받은 것은 정확한 공사내역이 아닌 엑셀로 작성된 물품 내역이 전부다.

3 투명하지 못한 한인회 반대 음해세력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자칭 '비상대책위원회'?

1년이 지난 현재시점까지 주종광 현 한인회 명예회장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유아무야 넘기려고 하는 **전 한인회 건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자칭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한다**는 8월 17일 임시 총회 모임은 아무런 효력도 없음을 공지한다.

2024년 8월 17일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 '한인회 임시 총회'를 자칭해 모인다는 모임은 **한인회 임시 총회 모임이 아닌 불법 모임일 뿐이다.** 애틀랜타 한인회칙 제11조 2항은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 이상의 이사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정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인회 측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주체가 '한인회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흥기 한인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오는 8월 17일 모임은 한인회 임시 총회가 아니며, **그에 따라 어떤 효력도 없음을 15만 애틀랜타 한인 동포들에게 알린다.**

또 애틀랜타 한인회를 흔들고 "사유화 하려는" 위 음해 세력들의 공격에 한인회가 맥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현 애틀랜타 한인회 임원진과 이사회는 최선을 다해 조속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